

한복도시 '브랜드화'

남원시,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씨 홍보대사로 위촉

'리을' 브랜드 통해 한복 정장 세계에 알리고 있어

남원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복도시 남원을 더욱 브랜드화 시킬 가능성 마련을 위해 22일 김리을을 한복 정장디자이너(28)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 디자이너는 남원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한복 정장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리을'이란 브랜드를 통해 한복 정장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이 자리에 이환주 시장이 그가 디자인한 한복 정장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브랜드 론칭 후 3개월 만에 단독패션쇼를 개최해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by 대한민국 리을 전시'를 추진한데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74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한국 농구 유니폼을 제작해 국가대표 농구선수들에게 입혀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디자인한 한복정장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유니크한 콘셉트로 한복을 재해석해 K패션, K한복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가 한복도시 남원을 더욱 브랜드화 시킬 가능성 마련을 위해 22일 김리을을 한복 정장디자이너(사진 왼쪽)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김형우 관광전문기자 및 개그맨 김범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으며, 김리을을 디자이너도 이들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국·내외 활동 및 관광, 문화, 지역축제의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최근 시가 '2020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한복의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김 디자이너에게 "앞으로 남원을 더욱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옥마을 여행정보 '이 책에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문화공연·체험프로그램 등 담긴 '콘텐츠북' 제작

대한민국 관광지 명소로 전주를 대표하는 여행지인 한옥마을의 문화시설과 체험정보가 담긴 책자가 발간됐다.

전주시는 여행객들에게 전통문화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 책자인 '전주한옥마을 콘텐츠 북'을 제작, 한옥마을 내 카페와 음식점, 한옥체험업소 등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콘텐츠 북은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hanok.jonju.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던 다양한 정보를 책자에 담은 것으로, △체험을 느끼다 △문화를 느끼다 △재미를 느끼다 등 3개 파트로 구성했다.

먼저 첫째마당인 '체험을 느끼다'의 경우 전통·생활·예술·예절·음식체험 등 전주한옥마을만의 다양한 전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100대 체험콘텐츠들로 채워졌다. 이어 둘째

마당인 '문화를 느끼다'에는 전주한옥마을의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시설들이 소개됐으며, 한옥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골목길 투어도 담겨졌다. 끝으로 셋째마당인 '재미를 느끼다'에는 이색여행에 대한 체험장소와 한옥마을의 상설콘텐츠 정보, 주요 문화행사 정보가 수록됐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소수의 숙박객만 수용하는 한옥체험업의 특수성과 함께 골목길 투어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여행지로도 적합한 곳"이라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 사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문화예술 경험 바탕 위기 극복"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 취임

(재)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가 22일 취임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재)전주문화재단 이사장(김승수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백 대표이사는 전주예총 사무국장, 전주공예품 전시관 초대관장을 거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도청 문화진흥사업 사무관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이론과 문화기획을 가르치는 등 30여 년 동안 문화계에서 활동했던 지역 출신 실무형 전문가이다.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지역 문화예술



인이 자신감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문화예술계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주문화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완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28일 완주 독립기념관·봉림사터 고산 백세청봉비 등 직접 탐방

완주도서관(관장 이용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돼 매주 화요일 오전에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회차까지 진행된 강연은 완주의 지리와 역사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은 "역사 수업은 조금 따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설명해 줘서 더욱 재미있는 것 같다"며,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고장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돼 매우 흥미롭고 현장 탐방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에는 완주군 독립기념관, 봉림사터, 고산면 백세청봉비 등 강연을 통해 배운 지역들을 직접 탐방하며 현장의 느낌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도서관(☎063-262-2239, 주무관 이성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확대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참가 희망단체 모집 전문 지도자 파견, 도복·용품 등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올 초 4개 단체가 선정되었던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를 8월 2일까지 접수 받아 6개 단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11월까지 15회에 걸쳐 태권도 교실을 진행한다. 태권도 기본 기술과 품새, 격파, 자기 방어, 태권 체조 등 주 1회, 2시간 진행할 예정으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개인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운영을 위한 태권도 사범 파견과 태권도복, 교육 기자재 등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모두 지원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전 연령층에 태권도 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 임준규 주임(063-320-0570) 또는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tpf.or.kr/tpf/main/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